



국무조정실  
국무총리비서실

# 보도자료



대통령소속  
국가지식재산위원회  
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

(배포) 2018. 3. 9(금)

## 3월 9일(금) 12:30(회의종료) 이후 사용

비고	* 모두말씀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		
담당	총괄	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과학통신방송정책과	과장 권기석, 사무관 서효원 (044-200-2248, 2226)
		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	과장 박진희, 사무관 유은실 (02-2110-2175, 2176)
	3호 안건	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	과장 박호형, 사무관 윤준호 (042-481-5168, 8661)

##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, 첫 회의 개최

-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40만명 양성 (창·취업 연계교육 5.3만명) -
- 대형R&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제 도입,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특허품질 관리 -

□ 정부는 3월 9일(금) 10시,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(구자열 민간위원장)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\*를 개최하여,

- 「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(안)('18~'22)」, 「고품질 지식재산(IP) 창출을 위한 IP-R&D 연계 실행방안(안)」, 「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(안)」의 3개 안건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

\*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·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(지식재산기본법 제6조)

\* 참석 : ▲민간위원(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민간위원 19명)

▲정부위원(과학기술정보통신부·보건복지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기획재정부·문화체육관광부·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 차관,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, 특허청장)

- 이낙연 총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제4기 민간위원(임기 : 2018.1.22.~2020.1.21.) 19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전수했습니다.

<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현황 >

- ◇ **위원장**(공동) : 국무총리, 구자열(LS그룹, 연임)
- ◇ **민간위원**(위원장 포함 19명)
  - 권택민, 김세일, 김유창, 김창현(연임), 김초엽, 김호원(연임), 박현주, 성정현, 송시영, 송은지, 신덕순, 신혜은, 유정주, 이광진, 임윤철, 정연길, 조미현, 한규남
- ◇ **정부위원**(당연직, 12명)
  - 기재부·교육부·과기정통부(간사)·외교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 장관, 국가정보원장, 국무조정실장, 공정거래위원장, 특허청장

- 안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 1호 안전 :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(안)(‘18~’22) >

- 「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」은 「지식재산기본법」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식재산(IP : Intellectual Property) 인력 양성 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\*을 제시했습니다.

- ※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·제33조·제34조는 정부의 지식재산 교육, 전문인력 양성의무 등 규정
  - (목표) 선도적 IP 인재성장지원으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
  - (4대 전략) ① 선도적 ‘IP창출’ 인재 성장 지원, ② ‘IP서비스’ 인력 전문성 강화, ③ 현장중심 ‘IP관리’ 인재 성장 지원, ④ 현장·융합형 ‘IP 인재 육성 기반’ 내실화

- 우리나라는 그간 1·2차 「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」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한 결과 관련 인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, 고급 실무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양성된 인력을 창·취업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다소 미흡했습니다.

□ 이에, 3차 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급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창·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

○ 특히,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,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 등 창·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.

※ (창·취업 연계 교육생수) 총 교육생 40만명 중 5.3만명(목표치, '18~'22)

□ 아울러,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\*도 중점 추진합니다.

\*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, 기업 CEO 대상 인식제고 프로그램 등

### < 2호 및 3호 안건 : 고품질 지식재산(IP) 창출을 위한 IP-R&D 실행방안(안),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(안) >

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\*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\* 지식재산 무역수지(저작권 제외) : ('12)△4.7조원 → ('14)△5.3조원 → ('16)△2.5조원

○ 이에,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R&D 전(全)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(2호 안건), R&D·출원·심사 등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는 방안(3호 안건)을 수립했습니다.

□ 지식재산(IP)과 R&D의 연계(IP-R&D)를 위해 '21년까지 원천·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정부 R&D과제의 50%까지 IP-R&D 전략 컨설팅\*을 확대하고,

\* 지식재산 전문가가 연구자에게 특허 및 시장분석, 지식재산 포트폴리오, 최적 권리화 설계, 사업화 전략 등 연구개발(R&D)에 대한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을 제공

- 연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&D 사업단에 특허 전담관\* (CPO : Chief Patent Officer)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한 후 '19년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
\* 사업단 전체의 지식재산 창출, 관리 및 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

-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·핵심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&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·제공하고 국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, 우리 기업의 특허 선점을 위해 우선심사(심사종결기간 10.7개월 단축\*)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.

\* (심사종결기간) 전체평균 16.4개월 → 우선심사 5.7개월

- 또한, 중소·벤처기업 대상 특허 설계 지원, 특허업계의 지원 단가 적정화 등 민간부문의 특허 출원 환경을 개선하고,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조직을 정비(인공지능 심사과, 사물인터넷 심사과 등 신설)하는 등 심사체계를 혁신할 계획입니다.

- 이를 통해, IP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허 무효율을 '22년까지 16%p 저감(('16)49.1% → ('22)33%)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- ※ 붙임 1. 상정안건의 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 
2.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명단

□ **(제1호) 「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(안)('18~'22)」**

전략	중점 추진내용
선도적 'IP 창출' 인재 성장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무발명제도 개선·확산* 및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환원하는 환경** 구축</li> <li>- 기업 연구인력 대상 실 사례 중심의 IP교육 추진</li> </ul> <p>* 직무발명 대상 확대(예: 식물신품종) ** 음원재생 사용료 납부 대상 확대(예: 커피전문점)</p>
'IP 서비스'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생물·유전자원 관련 국제규범 전문인력 양성</li> <li>- 미취업자 대상 IP 실무교육, IP 서비스기업 채용 연계</li> </ul>
현장중심 'IP 관리' 인재 성장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별 IP 커리큘럼 설계 및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운영</li> <li>- 산업분야별 현장실무자 대상 IP 활용전략 교육 추진</li> </ul>
현장·융합형 'IP 인재 육성 기반' 내실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생애주기별* IP 인재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</li> <li>- 지자체-지역대학-기업 간 협력을 통해 IP 지역인재 양성 및 창·취업 연계</li> </ul> <p>* 청소년 대상 발명·저작권 교육, 대학(원)생 대상 IP 전문학위 및 IP 선도대학 확대 운영 등</p>

※ 상기 제시된 수치는 '22년까지의 전망 또는 목표치로, 향후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**(제2호) 「고품질 지식재산(IP) 창출을 위한 IP-R&D 실행방안(안)」**

전략	중점 추진내용
R&D 전(중) 과정에 IP 전략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기획) R&amp;D 기획단계의 특허동향조사 대상 확대*</li> </ul> <p>* (現) 응용·개발 R&amp;D → 활용 목적의 대형(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) 기초 R&amp;D로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수행) IP-R&amp;D 전략 컨설팅 본격 실시*</li> </ul> <p>* 원천·핵심기술 개발 목표의 연 10억원 이상의 R&amp;D과제의 50%까지(~'2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활용) 우수 R&amp;D과제 조기발굴을 위해 사업화 지원 기관*의 R&amp;D 과정 참여 확대(성과정보 공유, 평가 등)</li> </ul> <p>*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(과기정통부), 산업기술진흥원(산업부) 등</p>
대형 R&D사업단 IP 전문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형 R&amp;D사업단 특허전담관 제도 시행</li> </ul> <p>※ (단계별 도입) 신규 및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대상 도입 권고('18) → 신규 사업단으로 도입 확대('19) → 정부R&amp;D 전반에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('20~)</p>
출연(연)의 선도적 IP 역량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연(연)별 특성에 맞는 IP 창출·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우수 특허선별을 위한 심의 강화</li> </ul>

□ (제3호) 「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(안)」

전략	중점 추진내용
<p>고부가가치 원천·핵심특허를 위한 ‘발명품질 제고’ (R&amp;D 단계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차 산업혁명 분야 R&amp;D 쏠 주기 특허분석 지원 확대 * 4차 산업혁명 분야 IP-R&amp;D 과제 : ('18) 173개 → ('22) 345개</li> <li>- R&amp;D·표준화·특허의 연계 강화로 핵심 표준특허 확보 * 우리나라 보유 표준특허 수 : ('16) 909건 → ('22) 1,900건</li> <li>- 4차 산업혁명 분야 우선심사 확대로 핵심 특허 선점 * 우선심사로 조기 권리화 : 최종결정까지 16.4개월 → 5.7개월(10.7개월 단축)</li> </ul>
<p>우수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드는 ‘출원품질 향상’ (출원 단계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·공공연구가 적정 특허비용을 사전에 확보토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수요기반 특허 출원 지원 확대 * 특허출원 지원기관(수요기반/전체) : ('17) 2개/30개 → ('18) 30개/30개</li> <li>- 중소·벤처기업의 특허설계 지원 강화 및 특허업계의 적정단가·고품질 출원환경 조성 추진 * 중소·벤처기업 대상 특허설계 및 해외출원 지원 펀드 신규 운영('18, 10억)</li> </ul>
<p>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‘심사품질 혁신’ (심사 단계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허 심사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주요국 수준으로 심사 투입시간 적정화하고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* 특허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(시간) : ('16) 11.0 → ('22) 20.0</li> <li>-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조직 정비(AI 심사과 등 신설) 및 융·복합 기술에 대한 ‘3인 협의심사’ 도입</li> </ul>

연번	사진	성명	주요경력	연번	사진	성명	주요경력
1 (연임)		<b>구자열</b> *민간위원장	· 現 LS그룹 회장 · 발명진흥회 회장	11		<b>송은지</b>	· 現 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· 現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부회장
2		<b>권택민</b>	· 現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부교수 ·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	12		<b>신덕순</b>	· 現 리앤목 특허법인 파트너변리사 · 現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
3		<b>김세일</b>	· 現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· 現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삶의질측정 표준본부 바이오임상표준센터	13		<b>신혜은</b>	· 現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· 現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위원회 위원
4		<b>김유창</b>	· 現 동의대학교 인간·시스템 디자인공학 교수 ·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	14		<b>유정주</b>	· 現 (주)꽃다지 대표이사 · 現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 산업협회 부회장
5 (연임)		<b>김창현</b>	· 現 (주)더기반 고문 · 한국중자협회장	15		<b>이광진</b>	· 現 (주)답메디 대표이사 ·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원 의생명공학과 박사과정
6		<b>김초엽</b>	· 現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운영이사(작가) ·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대표자운영위원	16		<b>임윤철</b>	· 現 (주)기술과가치 대표이사 · 기술경영경제학회 부회장
7 (연임)		<b>김호원</b>	· 現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 · 특허청장	17		<b>정연길</b>	· 現 창원대학교 메카트로닉스 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 · 現 한국세라믹학회 부회장
8		<b>박현주</b>	· 現 (주)시오티 대표이사 · 現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실무위원회 위원	18		<b>조미현</b>	· 現 (주)현암사 대표 ·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
9		<b>성정현</b>	· 現 특허법인 흥정 대표변리사 · 現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	19		<b>한규남</b>	· 現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 · 삼성 SDI 책임연구원
10		<b>송시영</b>	· 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장/대학원장 · 現 대한취담도학회 회장				